

# 박선영 “지선우보다 현실적인 인물, 최후의 승자”

JTBC ‘부부의 세계’서 바람 피운 남편 인내하는 고예림 역  
“여자가 겪는 상처·아픔 보여주는 캐릭터... 많이 느끼고 배웠다”

“아마 현실이라면 선우처럼 단호하고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예림이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며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을까요?”

신드림급 인기를 얻은 JTBC ‘부부의 세계’에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지선우(김희애 분)가 화끈하게 복수를 택하는 쪽이었다면, 고예림(박선영)은 참고 또 참는 쪽이었다.

25일 고예림을 연기한 박선영은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고예림은 결국 홀로서기까지 이 여자가 겪는 상처, 아픔, 고통, 성장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인물이나 많이 공감해주신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선 지선우 같은 사람보다 고예림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홀로서는 인물이나, 그래서 더 응원해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박선영이 그냥 고예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뻐요.”

극 중 고예림은 손제혁(김영민)과 재결합하지만, 그가 준 상처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길을 택한다. 마지막 회에서 손제혁이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 박선영은 “제혁이는 그런 사람이다. 마음 한쪽에 티라미수(고예림이 좋아하던 음식)를 품고 다른 여자와 또 살 것”이라며 “그래서 예림이가 옳았다. 잘했다. 제혁과 함께했다면 둘 다 불행했을 거다”라고 자신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최후의 승자는 고예림”이라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 홀로 선다. 그래서 예림이가 좋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바람을 참는 건) 연기지만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괴로움을 참고 참는 예림이가 너무 답답하고 안스럽고 딱하고. 그걸 또 연기하려면 속이 타고... 그래서 촬영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가장 기억 남는 장면으로 예림이 제혁에게 ‘괜찮지가 않다’며 관계를 끝내는 신을 찍었다.

“결국 그 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털어내는 장면이었는데 많이 슬펐어요. 이 친구로 7개월을 살았는데 그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박선영은 “처음엔 미스터리하고 고요하지만 자기 주관이 있는 묘한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이 여자가 너무 안타깝고 동화돼서 그 심리에 더 집중하게 됐다”면서 “언뜻 비치는 진심에서 많은 감정을 표현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담백하게 풀어나가는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교양이 몸에 밴 전업주부 고예림을 연기하기 위해 머리와 의상 등 보이는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헤어는 단정하게, 의상은 단아하지만 때로는 화려한 느낌을 살려서 예림이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려고 했다”던 그는 “단아하고 우아하지만 세련되지 예림이라는 인물 이미지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금 현실적인 연기라고 할까요. (연기를) 많이 안 하는데 감정을 다 표현해야 하니 고민이 많아지고 혼자 스트레스받고 그랬죠. 실제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인물로 녹아들게... 하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었다”면서 “좋은 작품에 함께 참여하고 치열하게 연기했는데 이렇게 결과까지 좋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이 드라마를 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30여년을 남남으로 살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집에 살면서 자식도 낳고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된,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 하하. 그래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주 작은 균열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연합뉴스



‘부부의 세계’에서 고예림역을 맡아 열연했던 박선영.



유재석-이효리-비 쓰리샷  
‘놀면 뭐하니?’ 기대 만발  
유재석, 박명수와 치킨집 도전도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는 MC 유재석과 가수 이효리, 비 세 사람이 드디어 만나 혼성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놀면 뭐하니?’는 무더위로 지쳐가는 여름, 흥 넘치는 리듬과 멜로디로 안방극장에 활력을 선물할 ‘여름X댄스X유재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재석은 특히 1990년대 가요계를 빛낸 혼성 그룹 특유의 감수성과 매력을 되살리기 위해 혼성 그룹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유재석, 이효리, 비가 시간을 거스른 듯한 외모와 분위기를 뽐내며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이 담겨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달터유’ 유재석은 ‘치명’ 박명수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치킨집을 한시적으로 개업해 치킨 100마리를 튀기고 1천마리를 결식 아동에게 선물하는 ‘토토닭(토요일 토요일은 닭이다) 챌린지’에 도전한다. ‘토토닭’은 마포구에 오픈한 100마리 한정 판매 드라이브스루 치킨집으로, 닭터유와 치명이 100마리를 모두 판매할 경우 900마리를 더한 치킨 1,000마리를 해당 지역 결식 아동에게 선물할 수 있는 챌린지이기도 하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김향기·류현경·염혜란 주연  
영화 ‘아이’ 크랭크인

김향기(사진)와 류현경, 염혜란이 영화 ‘아이’ (가제) 출연을 확정 짓고 25일 촬영에 들어갔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아이’는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해 아동학과 졸업한 앞둔 대학생 아영이 생후 6개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영재의 베이비시터가 되면서 시작되는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향기가 보호 종로 청년 아영 역을, 류현경이 비혼모 영재 역을 맡았다. 영재는 아영을 만나 고단한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된다. 염혜란이 영재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미자 역을 맡아 활력을 더한다.

‘동구 밖’, ‘기행’ 등 단편 영화를 연출한 김현탁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차트 찍고 감성도 올린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숨겨진 명곡 재조명했죠”

‘아로하’·‘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등 히트...아날로그 음악으로 서사 풀어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 우리 처음 만난 그 날에...”

이익준(조정석)은 슬기로운 빌어 신호범의 2006년 곡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부른다. 눈은 노래방 화면에 고정돼 있지만, 누구를 향한 노래인지는 분명하다. 옆자리 채송화(전미도)의 표정이 애뜻해진다. 이십년지기 ‘친구’라는 이름 아래에 흐르던 익준과 송화 사이 미묘한 기류가 가장 뚜렷해지는 순간.

익준의 노래는 배우 전미도가 직접 부른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시 이어지며 극 중 감정선에 입체감을 더한다. 전미도가 부른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는 22일 정오 발매 후 멜론을 포함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휩쓸며 차트 파워를 독보적으로 발휘했다.

드라마에서 읊조린 송화를 연기하지만, 실제론 뮤지컬 배우로 활약해온 전미도는 이 곡에서 깨끗한 음색과 ‘반전 가창력’을 선보였다. 신호범 원곡이 함께 차트를 역주행하는 잔존경도 빛어졌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를 제작한 스튜디오 마음C를 이끄는 마주희 프로듀서는 “조정석씨가

‘아로하’를 불렀으니 전미도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 참 흥분하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반박송을 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전했다.

역시 차트 1위를 휩쓴 조정석의 ‘아로하’(콜 원곡)를 비롯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삽입된 추억의 노래들은 각 에피소드의 테마 역할을 하며 화제가 됐다. 1990~2000년대 아날로그 감성 명곡들이 주인공 5인방의 밴드 합주 신곡 리메이크 버전으로 매회 등장한다.

최근 전화로 만난 마주희 프로듀서는 “숨겨진 명곡” 콘셉트로 섞어 있었다”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조명됐을 때 참 좋겠다 싶은 곡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로하’를 불렀으니 전미도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 참 흥분하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반박송을 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전했다.

역시 차트 1위를 휩쓴 조정석의 ‘아로하’(콜 원곡)를 비롯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삽입된 추억의 노래들은 각 에피소드의 테마 역할을 하며 화제가 됐다. 1990~2000년대 아날로그 감성 명곡들이 주인공 5인방의 밴드 합주 신곡 리메이크 버전으로 매회 등장한다.

최근 전화로 만난 마주희 프로듀서는 “숨겨진 명곡” 콘셉트로 섞어 있었다”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조명됐을 때 참 좋겠다 싶은 곡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전미도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p> <p>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p> <p>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b>장 어 수 산</b></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p> <p>무항생제 장어사용</p> <p>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p> <p>신용본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p><b>퀵타로카드</b></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p> <p>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b>(유)신 화 로 프</b></p> <p>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p> <p>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p> <p>☎ 061)335-2301~2, 010-3429-6400</p>
<p><b>남 문 냉 동</b></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p> <p>저온저장고제작사주, 영업용 냉장·냉동수리</p> <p>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p><b>미 가 한 우 명 가</b></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p> <p>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p><b>무크 광주세정점</b></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p> <p>회사한복 신상품 대량입고</p> <p>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p> <p>☎ 062)370-9258</p>	<p><b>신 신 예 술 의 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p> <p>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김 동 일 쉼 프</b></p> <p>동구 지호로42(지선2동사무소입구 마트앞)</p> <p>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p> <p>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p> <p>☎ 062)228-1975, 010-9622-8938</p>	<p><b>우 리 뷔 페</b></p> <p>남구 지석동 73-5번지</p> <p>(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p> <p>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p> <p>(회사·단체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b>개 성 전 통 한 방 삼 계 탕</b></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p> <p>삼계탕전문점</p> <p>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b>천 상 일 월 태 주 명</b></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p> <p>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p><b>고 전 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p> <p>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만 복 당</b></p> <p>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p> <p>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p> <p>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p> <p>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p> <p>☎ 062)959-0680, 010-4602-0680</p>	<p><b>동 양 철 학 원</b></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p> <p>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p> <p>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b>석 당 화 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p> <p>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p> <p>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b>자 연 모 가 발 안 병 원 헤 어 샵</b></p> <p>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p> <p>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p> <p>중형개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폼·대여가능</p> <p>☎ 062)227-8084, 010-3608-2943</p>	<p><b>초 대 화 랑</b></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p> <p>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대 성 각 중 화 반 점</b></p> <p>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p> <p>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p> <p>전화주문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p><b>박 당 화 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p> <p>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